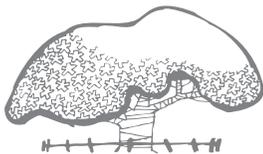


#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일본에 「특정농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약과 어떻게 다른지?

**A** 지난 2002년 12월 농약관리법 개정 에 의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특정 농약은 이 금지규정에 따라 농작물의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나 천적으로 안전성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까지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된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원재료에 비추어 농작물 등 사람과 가축 및 수산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농림수산성장관 및 환경성장관이 지정하는 농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3월에 「중탄산소다」, 「식초」, 「사용될 장소의 주변에서 채취된 그 지방에서 서식하는 천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관리법상의 농약은 지금까지의 '등록농약' 과 '특정농약' 의 2종류가 있습니다.

### [지정만으로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가능]

'등록농약' 은 농약으로서 등록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며 방제효과는 물론이고 약 30항목의 안전성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하여야 합니다. 등록은 각 제품마다 즉, 동일한 유효성분도 제조회사가 다르면 그 제조회사마다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농약' 은 '등록농약' 과는 틀리며 개별 제품이 아니고 함유된 성분 즉 '식초' 라는 성분으로 지정되며 지정만으로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특정농약' 의 후보에는 740항목이 있었지만 120항목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성의 자문기

관인 농업자재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농약 관리법의 원래 제정 취지가 농약의 유사품 유통을 규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약효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농약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전부 지정이 보류되어 '중탄산소다' '식초' '사용될 장소의 주변에서 채취된 그 지방에서 서식하는 천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보류된 항목에 대해서 검토가 계속됩니다. 그 사이 보류된 항목을 개인의 책임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약효가 있다고 선전하여 판매하면 미등록 농약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농약'이라는 어휘에는 이의나 위화감이 있다라는 소리가 유기농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배려하여 '특정방제 자재'라는 일반적인 명칭의 사용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보다 효과적이고 안심·안전한 농약사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A** 먹거리의 안전·안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약의 사용을 절감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약의 사용을 줄이면서 방제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력이 길고 한번 사용으로 방제가 끝나는 농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적용약제가 많이 있는 수도작 분야에서는 비교적 쉽습니다만 적용약제가 적은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에서는 신약의 등장에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는, 적기에 농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다 방제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살포적기를 놓쳐 원래라면 줄어들어야 하나 수확기 가까이에서 살포량이 늘어 버리면 먹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방제의 적기를 잡으려면 포장에서의 관찰이 중요하고 병해충 발생 예찰정보가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살균제 등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염시기를 찾아내는 한편, 한번 방제 후 다음번 방제를 언제 어떤 약제로 하면 좋을지 또는 저항성 경감을 위한 약제의 선택방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셋째는, 농약이외의 방제수단도 받아들여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병해충방제종합적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방법입니다.

병해충 방제의 방법에는 △경종적 방제(윤작체계나 저항성품종의 이용 등) △물리적 방제(태양열이나 수증기, 방충망 이용 등) △생물적 방제(천적곤충·페로몬, 저항식물 이용) △화학적 방제(천적에 영향을 주지 않은 농약 이용, 국소시용) 등이 있습니다. IPM은 이와 같은 방법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병해충을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허용수준 이하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대상 병해충의 범위도 한정되어 효과도 불안정하고 비용도 비싼 것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수량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유기농업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농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Y